



일자: 2021년 11월 16일(화) 장소: 소상공인

기업은행-소공연, 소상공인 디지털 강화 맞손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오른쪽)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중견연, 중견기업 주간 맞아 어린이들에 온정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연)가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에 맞아 소외 계층 어린이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중견연은 지난 15일 '제4회 나눔 세상, 좋은 이웃' 후원 전달식을 개최하고 사단법인 해피피플에 후원금과 물품 등 총 3억 원 어치를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익 중견연 상근부회장(오른쪽)이 박희 해피피플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연



아워홈, 울산시 영유아 안전 먹거리 공급 나선다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은 울산광역시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대상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은지 울산 육아종합지원센터장(첫줄 왼쪽 네번째)과 정종관 아워홈 TFS사업부 부문장(첫줄 왼쪽 다섯번째) 등 양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워홈



조아제약, 기부챌린지 통해 소외 아동에 제품 기부

조아제약이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기부 챌린지'를 통해 소외 계층 아동에게 나눔을 이어나갔다고 16일 밝혔다. 9월 월간 MVP로 선정된 kt 위즈 고영표 선수는 만점을 기록해 총 250만원 상당의 '젤리 잘크톤'을 자신의 이름으로 경기도 구리시 위스타트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다. /조아제약

인사

- ◆국립공원공단 ◇임명 △자원보전이사 손영민
- ◆국가철도공단 ◇전보 △호남본부장 최원일 △설계실장 유성기
- ◆부산일보 △편집국장 노정현 △혁신TF팀장 손영신

부음

▲이범규씨 별세, 이원구(인친 연수구 언론팀장)씨 부친상 = 15일 오후 8시20분, 인천 동구 송림동 청기와장례식장 특실301호, 발인 18일. 032-583-4444

기준금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신세철의
쉬운경제

금리의 고저를 논의할 때는 금통위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가격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금리로 판단해야 한다. 경제 각 분야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가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거시경제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금통위가 정하는 기준금리의 기준은 시장금리가 적정수준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선이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인지 금리경로가 왜곡되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의 최소 3~4배나 되

게 높게 형성되어도 이를 외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 빚어지고 있다.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금리·주가·환율 같은 금융가격지표를 변동시켜 경제활동에 모든 분야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먼저, 단기금리인 콜금리, 중장기금리인 채권금리, 예대금리를 변동시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같은 총수요를 변화시켜 물가에 변동시키는 금리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가치를 변동시키는 자산가격경로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자산보유 변화를 초래한다. 그다음, 금리조정은 내외 금리 차를 확대하거나 축소시켜 환율을 변동시키는 환율경로를 통해 (수출입)물가 변동과 함께 자본유출입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처럼 거시경제 각 분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기에 금리는 절대로 누구 마음대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메시지를 준다.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을 연결하는 관건이 되는 금리는 보이는 손(visible hand)의 정책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시장에서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집합적 의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시장금리가 거시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기침체 또는 경기과열에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이 정책도구로 남용되면 그 부작용이 기대효과보다 헤아릴 수 없이 커져 국민경제를 위협과 불확실성에 빠뜨리는 결과가 초래됨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 정책목표에

치우치지 말고 시장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며 멀리 보아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금리를 억지로 억누르거나 끌어올려 금융과 실물이 엇박자를 낼 경우, 대내외 경제적 충격을 시장기능에 따라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재앙을 불러온다. 만약 이러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기준금리를 특정 정책 목표에 따라 임의로 조정하다보면 국민경제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져가기 마련이다.

가계와 기업은 정부실패나 시장실패를 막론하고 금리가 거시경제현상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동떨어져 움직이면 크고 작은 재앙을 막아내기 어렵다.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과 불확실성에 미리부터 대비하여야 나라경제도 또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경제칼럼니스트

SKT, 동반성장 파트너사 33곳에 감사선물 전달

동반성장 프라이드 어워드 2021 해외연수·무이자대출 등 지원도

SK텔레콤은 올 한해 함께 성장하며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선물을 전달하는 '동반성장 프라이드 어워드 2021'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SKT는 이날 수상 회사로 선정된 33개 기업에 영유상 CEO의 축하 메시지와 선물을 발송했다. 수상 기업에는 인증패와 환관 등 선물과 함께 임직원 해외 연수 기회 및 무이

자 대출 프로그램 우선 지원권이 제공된다.

올해 '동반성장 프라이드 어워드'는 ▲주요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시너지' 부문 ▲ESG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파트너십' 부문 ▲SKT와 공정거래협약을 최초로 맺은 기업 중 우수 실적을 거둔 '루키' 부문 등으로 세분화해 동반성장 기업의 수상 가능성을 넓히고 전문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 포상 내용 중 수산업체 대상 대출금리 할인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소정의 금액까지 무

이자 대출을 병행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

또 SKT는 오는 23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175개 우수 비즈니스 파트너사들과 '동반성장 행복캠프(온라인)'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동반성장 행복캠프'는 올 한해 상생을 통해 창출한 성과 공유와 축하, 최근 ESG 핵심 현안에 대한 특강으로 이뤄진다.

한편 SKT는 11월 초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1년 동반성장 유공포상' 단체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

며, 꾸준한 동반성장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SKT는 '코로나19'로 심화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 동통신 장비와 솔루션 국산화를 통한 중소기업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동반성장펀드 운영 및 기술 임차비용을 무상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설날과 추석에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인재 확보를 위한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해 파트너 기업들을 지원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화상경험 아동 엄마가 쓰는 일기 공개

한림화상재단, 연말까지 전시회

한림화상재단이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림대학교강성성병원 제 5별관 3층 화상병원학교에서 화상경험아동 엄마가 쓰는 '다이어리 전시회'를 연다. 다이어리 전시회는 화상 아동을 돌보는 엄마 17명이 2021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5개월간 '세줄일기' 어플을 통해 쓴

일기를 공개한다. 화상을 당한 자녀를 돌보며 엄마들이 겪는 아픔과 성장,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응과 깨달음 등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엄마들의 일기는 세줄일기 측의 후원으로 책으로 발간됐으며, 이는 화상병원학교에 기증됐다. 또한 한림화상재단은 전시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19일 다이어리 콘서트도 개최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 세번째)과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왼쪽 첫번째), 조홍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왼쪽 두번째), 김인순 해밀학교 이사장(네번째), 박수안 박기법 재단 이사장(다섯번째), 신영재 강원도의회 의원(여섯번째)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다문화 청소년 위한 보금자리 마련

하나금융그룹 해밀 상호문화교류센터 준공

하나금융그룹이 다문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밀 상호문화교류센터'를 준공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밀 상호문화교류센터'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생활할 수 있도록 강원도 홍천 소재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내에 위치한다.

이번에 건립된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학생기숙사 22실과 사감 및 교사실 8실, 총 30실이 갖추

어져 있으며 다목적실, 창의교육실 등의 여가활동 및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도 구비되어 총 80명이 생활할 수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다양성과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미래 세대의 핵심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건립에 동참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차별과 편견 없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